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박 36選

‘고려=불교’ 상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11. 고려시대 불교,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융성하면서 사상과 문화의 꽃을 피웠고, 성리학을 숭상한 조선 시대에 들어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식적 통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많은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토착 신앙이 강하게 존속하였을 뿐 아니라 유교가 상류 지식층에서 중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굳어진 관념으로 재단하거나 통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역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 또한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자기 성찰과 전환적 사고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려를 불교국가라고 보는 것은 어떨까?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 지눌을 알지 못하더라도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세계기독교산인 고려대장경과 화려한 고려불화의 장엄함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답을 할 것이다. 또 조선이 개국할 때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불교를 맹렬히 비난했다는 교과서적 지식을 기억한다면 역시 그렇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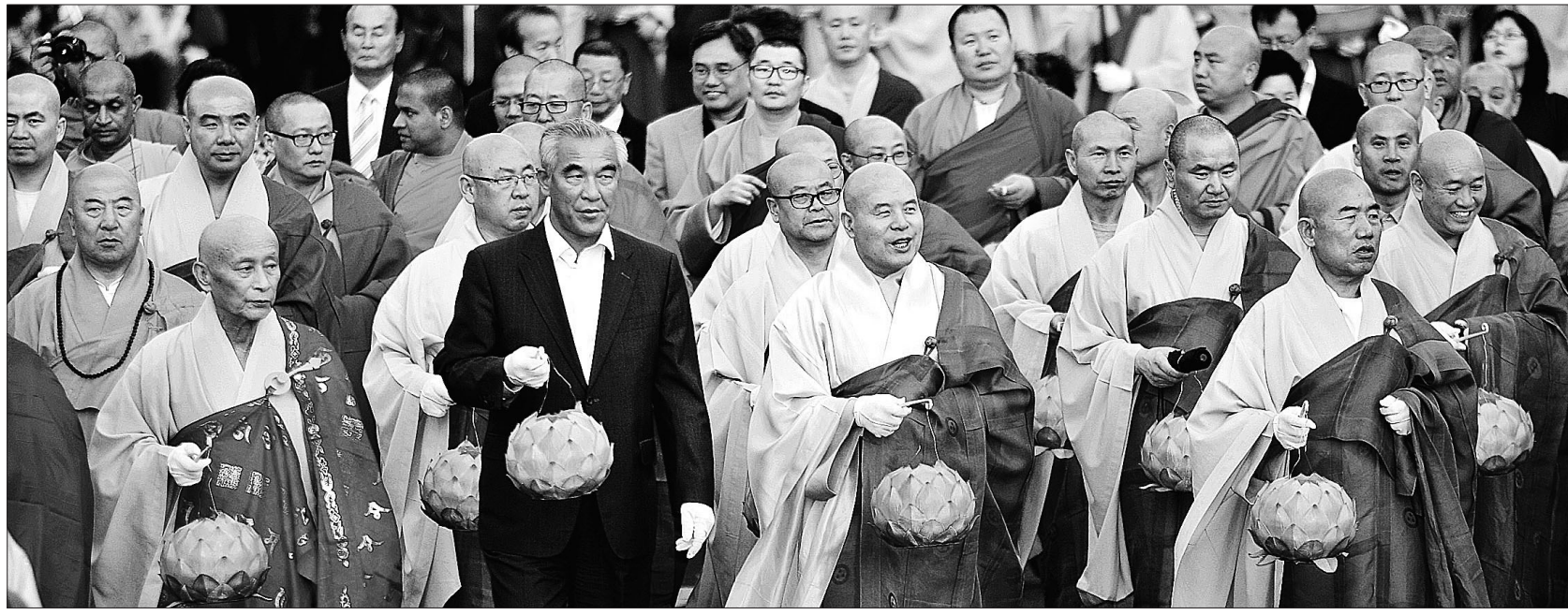
물론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전성시대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고 정치는 유교 이념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대개의 고려인들은 불교뿐 아니라 무속과 도교 등도 숭상하였다. 이 점에서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였지만 덮어놓고 불교국가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고려시대 불교의 다양한 실상과 함께 ‘불교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자.

고려는 불교국가였을까?

고려(918~1392)는 통일신라에 이어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중시하였으나 정치는 유교 이념으로 운영하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였다. 그러면서도 교단은 관료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편제, 관리되었다. 고려시대에 유교와 불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상호 공존하는 관계를 이루었고, 불교 교단이나 승려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은 국가운영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고 국왕과 귀족에서 일반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불교를 신앙하였다. 왕족이나 문벌귀족 출신의 고승들이 다수 나왔고 대장경 조성 등 국가적 차원의 불서 집성과 출간이 이루어져 불교를 통해 문화 국가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 말에 도입된 선종이 종파로서 성립하였고 고려 중기에 천태종이 개창되면서 화엄종, 법상종과 같은 기존의 교종 교단과 함께 공존하였고 후기에는 선종이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기본적으로 숭불군주였는데, 불교를 신앙하면서도 불교 교단의 확대나 정치적 세력화는 경계하였다. 즉 숭불과 통제는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국가와 불교 관계의 기본 구도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 모습. 신라시대에 시작돼 고려시대에 와서 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한 연등회는 현대에 와서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창업자인 태조 왕건에게서 비롯되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후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자신이 통합시킨 후백제 지역에 개태사를 창건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원문을 지었다.

“하늘에 고하여 생민을 도탄에서 건질 것을 맹세 하였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힘에 의탁하고 하늘과 신령의 위엄에 의지하여, 20여 년간 바다와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남쪽을 치고 동쪽을 치며 방패와 창으로 베개를 삼은 끝에 마침내 백제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죄를 누우쳐 새사람이 되겠다고 귀순해 온 이들은 탈탈판금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보호해 주심에 보답하고, 산신령의 도와주심을 감으로 특별히 불당을 창건하여 산의 이름을 천호, 절의 이름을 개태라고 하나이다. 원컨대 부처님의 위엄으로 덮여 주고 보호해 주시며, 하느님의 힘으로 불들이 주옵소서.”

이는 통일전쟁의 승리가 부처님과 하늘과 신령의 은덕이며 불법의 도움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불교뿐 아니라 하늘과 신령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신앙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태조 왕건은 후대 국왕들의 국정운영에 기본 지침이 된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이 중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왕업은 여러 부처님들이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입었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절을 짓고 주지를 뽑아 보내어 그 업을 닦게 하라”고 하였고, 2조는 “도선이 터를 잡아 정한 곳 이외에 절을 함부로 짓는다면 지력을 손상시켜 왕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 신라 말에 다투어 절을 지어 지력을 손상시켜서 망함에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5조에서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불법을 숭상할 것과 절을 지어 땅의 기운을 보완하는 비보사찰을 보호할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사찰을 새로 지나치게 많이 짓는 것을 금하는 등 교단 및 사찰의 비대화, 권력화를 경계하였다.

고려 왕조의 정치이념은 유교

‘崇佛’ 하면서도 政·教는 분리돼

‘훈요십조’ 내용대로 왕실 주도

연등회·팔관회 등 성대히 개최
왕권 아래 불교교단 형성·운영

유교·도교도 꾸준히 지원·발전

고려 문화의 다원성 이해해야

숭불왕조와 연등회·팔관회

‘훈요십조’에 나오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태조의 유훈대로 국가의례로서 국왕의 주도 하에 매년 성대하게 치러졌다. 즉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불교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적 의식이었다.

연등을 밝히고 음악과 춤, 연극을 행하는 연등회는 음력 1월 15일이나 2월 15일에 개경과 지방 중심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틀간 치러진 연등회는 불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의례였고, 고려 국왕과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자리였다. 다만 원 간섭기 이후에는 1, 2월의 상원 연등회 대신 석가탄신일을 기리는 사월초파일 연등회가 유행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연등회의 실행방식을 보면, 첫날인 14일에는 국왕이 왕족, 귀족들과 함께 궁궐에서 열린 음악 및 가무 행사에 참석한 후 개경 남쪽 태조의 진전사원인 봉은사에 행차하였는데, 이때 장엄한 행렬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무르익였다.

국왕은 봉은사에서 태조 영정에 절을 하고 제사를 올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개창한 태조의 위엄

을 기렸다. 저녁에는 궁중에서 등석연이 펼쳐졌는데 휘황찬란한 연등 밑에서 악기가 연주되고 신하들은 시를 지어 바쳤다. 백성들 또한 관동놀이로 즐겼는데 이날 밤은 도성 내의 통행이 허가되어 밤새도록 축제에 이어졌다. 다음 날에는 군신이 함께 공연을 보고 차와 술을 권하면서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본격적인 연회가 펼쳐졌다.

팔관회는 서경, 즉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10월 15일, 개경에서 11월 15일에 열렸다. 팔관회는 전통적인 명산대천과 용신 등에 대한 제사, 제천의식 및 불교의례가 접목된 행사로서, 불교의 반승의식과 함께 고대의 수확제, 토착 신앙이 결합된 축제의 성격을 가졌다. 또한 팔관회는 고려와 국왕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군신 간의 위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팔관회는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행일자를 반드시 지켰을 정도로 고려의 중요한 국가의례로서 치러졌다.

팔관회 때는 첫날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깃발과 무기를 들고 도열한 가운데 국왕이 의봉루에 행차하여 태조의 영령에 작헌례를 올리며 시작을 알렸다. 이후 궁궐에서 신하들이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였고 국왕은 음식과 술을 하사하며 흥겨운 연회를 베풀었다. 다음날에도 국왕이 의봉루에서 신료들과 함께 작헌례를 행하고 외국에서 온 축하사절단을 맞이하여 진상을 받았다. 황제의 격식을 갖추어 치러진 팔관회는 지방관과 외국 상인 및 사절단이 고려 국왕에게 축하의 글과 예물을 바치고 그에 대한 하사품을 내리는 대연회가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왕권의 불교 숭앙 이면의 것들

이처럼 불교는 역대 국왕들의 숭앙을 받고 국가 차원의 불교의례가 행해졌는데, 고려시대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교단의 관리 및 운영 체제였다. 고려는 관료제와 동일하게 승정제도를 운영하여 정치와 종교의 이원체제를 갖추었다. 즉 불교 교단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승록사를 두어 승적과 관리하였고 왕명에 의한 고승의 탐비 건립, 사찰과 승려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등 제반 승정을 다

루었다.

또 관료 선발시험인 과거제와 마찬가지로 학식을 갖춘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제를 운영하였다. 승과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는 승계가 수여되었고 그에 따른 승직이 주어졌다. 주요사찰의 주지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계가 있어야 했다.

승계는 승과 합격 후 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의 순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는 교종의 경우 수좌-승통, 선종의 선사-대선사의 최고위 승계를 받았다. 이처럼 승적 관리, 승과 시행, 승계와 승직의 부여와 같은 인사체제와 교단 행정, 공과에 대한 대우와 처벌 등 제반규정을 관료체제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승과와 함께 고려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왕사, 국사 제도를 들 수 있다. 왕사와 국사는 국왕의 스승으로서 국왕에 의해 예우되었고 국가의 정선적, 종교적 스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국왕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 관할하는 이원적 체제에서 고승을 명목상 국왕의 상위에 두어 불교 교단의 정치적 자립과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왕사와 국사의 최종 임명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불교 교단이 역시 세속의 왕권 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는 단순한 불교국가가 아니다

이제 시야를 고려사회 전체로 돌리면, 불교는 다양한 계층에서 신앙되고 지지를 받았다. 국왕과 왕실은 1만 명에 달하는 승려들을 초빙하는 대규모의 반승 행사를 열어 공양하기도 하였고 원찰을 두었으며 국왕과 왕비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 지내는 진전이 주요 사원에 설립되었다.

또 의천과 같이 왕족 출신의 고위 승려가 배출되고 귀족 자체들 중에서도 관료적으로 많은 출가자가 나오게 따라 승려의 사회적 위상 또한 매우 높았다. 귀족 및 관료층의 경우 은퇴 후 사원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화장, 납골과 같은 불교식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민들도 민간신앙과 함께 불교를 숭상하였고 각 지역의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신앙 결사공동체인 향도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보면 고려는 불교국가의 모습과 가까웠다. 하지만 정치이념은 유교였고 도교의 경우도 도관이 설치되고 관단화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지원 및 관리를 받았으며, 사회 일반에서도 무속과 풍수지리설 등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불보살뿐 아니라 각각의 영험 있는 신들을 찾아가 복을 빌었고, 이러한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이야말로 고려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고려를 불교국가로만 한정한다면 고려가 가진 다원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굳이 불교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고려시대 불교가 가진 지력이나 위상이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불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불교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세속화의 용광로 속에서 2천년 동안이나 존속해 왔다. 문제는 참된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지, 국가의 후원이나 통제, 국가에 대한 불교의 기여를 더 이상 금과옥조 역사의적 기억으로 회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I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I08 염주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염선했었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8cm]

●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giban
● 나만의 완성세계 기giban
●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giban
● 생활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giban
● 기giban 완성 전정파 인본 정통한 나만의 만능입니다

www.hyunbulshop.com